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수 박순철

# 여수시, 공공근로·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작

### 환경정화·정보화 등 60개 사업 381명 참여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를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 18일부터 6월 28일까지며, 사업 대상자는 환경정

화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정보화사업 등 60개 사업에 참여한다. 근무시간은 일반노무 주 25시간(65세 이상 15시간), 정보화사업 주 40시간이며 시급은 8300원이다. 시는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8일 오전 9시 여수문화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시 관계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 일자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가구 소득·재산 부양기준 수 등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곡성군, 멜론마을 조성 위해 주민 공청회 개최



곡성 멜론농촌융복합산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역 대표 특화작목인 멜론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곡성을 대평리 일원에 멜론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단은 멜론마을을 조성해 곡성 멜론 브랜드의 전국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멜론농가의 수익 창출을 증대시킨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군은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며 멜론 관광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14일에는 사업예정지 마을회

관을 찾아 그간의 컨설팅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멜론농가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곡성군과 주민들은 멜론마을 조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청회에서는 기존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리모델링해 홍보, 전시, 체험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융복합센터로 운영하는 계획이 주요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멜론 생산 농가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 멜론마을만의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 가차마을 관광객이 멜론마을로 유입될 수 있는 동선 전략 등에 대해 주민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멜론마을 조성 사업추진 과

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계획에 대해 멜론농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단은 곡성군의 특산물인 멜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멜론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곡성군 농정과장을 단장으로 2018년 4월에 출범했다. 주로 생산 농가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홈페이지 및 소셜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며 곡성멜의 융복합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생산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멜론 가공 및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곡성=김광희 기자

# 영암군,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

영암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자와 지역 기업 양쪽에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으로, 전남도와 영암군이 2010년부터 진행해 왔

며, 올해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참여 기업과 청년에게 1년차에 취업장려금으로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이 3개월간 나눠 지급,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으로 청년 400만원, 기업 150만원이 매분기 나눠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4년차 지원금이 신설되어 장기근속금으로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되어 청년 취업자 1명당 당초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참여자기업의 경우 영암군내 소재하고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5인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며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며 참여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영암군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061-470-2351)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담양군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제12기 담양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군은 생산비 절감, 새로운 작목의 체계적인 재배기술, 유통 등 단계별 교육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열망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12기 담양군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 교육은 대학과정인 2개과정, 스

마트판(과채류)과 포도(사인머스켓)과정을 개설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입학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1기에 걸쳐 7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품목별 연구모임, 추수 교육, 교육 피드백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업인대학은 최고의 전문 강사를 초빙한 교육과정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청년담양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다"며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교육경영담당(061-380-3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흥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좌담회 개최



장흥군은 최근 장평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평면 이장 및 사회단체장 등 50명이 참석한 이날 좌담회에는 사업개요, 필요성, 추진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좌담회에서는 향후 FTA에 따른 쇠고기 관세제지와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 그와 관련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특히, 단순한 사업설명회 아닌 장

흥군 축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발전방향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축산업과의 수익성 비교분석 제시 요구,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축사규모 조정, 시범단지 분양 절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며, "사육관리의 효율화, 생산비 절감 등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안군,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 시행



무안군은 지난 14일 해제면 대사리 읍신마을을 시작으로 매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마다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토지행정 서비스'는 교

통 및 거동이 불편하여 군청 방문이 어려운 농촌 오지 마을을 위주로 방문하여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과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개발공시지가 및 실거래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지역특량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관련 업무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주소에 대한 설명 ▲지역제조사업에 대한 공금증 해소 ▲국·도·군정 시책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내용이다. 지목변경, 합병,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 등은 토지 소유자 및 신청인의 인적 사항 확인 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군청에 접수하고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군 관계자는 "찾 방문 마을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크고 호응도 높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행정 중심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모든 군민이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맺힘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